『전쟁론』 완역 후기[1)]

김만수*

목 차

Ⅰ. 머리말
Ⅱ. 『전쟁론』 번역서 현황
Ⅲ. 『전쟁론』 번역 작업 과정
Ⅳ. 『전쟁론』 읽기의 어려움
Ⅴ. 『전쟁론』 연구와 관련된 향후 계획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독일어 원전 전 3권이 2009년 10월에 김만수에 의해 국내 최초로 완역·출간되었다. 『전쟁론』 번역의 제1권은 2006년 1월에 출간되었고, 제2권과 제3권은 2009년 10월에 동시

* 사회학박사,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1)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비판적인 조언을 해주신 대전대학교 김준호 교수님과 진석용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에 출간되었다. 『전쟁론』의 많은 한국어 번역판 중에 독일어 원전을 번역의 텍스트로 삼아 원전 그대로 3권으로 출간된 것은 2006년과 2009년 갈무리 출판사에서 출간된 『전쟁론』이 유일하다.

대전대 군사연구원의 초대 원장 김준호 교수로부터 2003년 여름에 『전쟁론』 번역 제안을 받았을 때 예상 번역 기간은 6개월이었다. 그것이 만 6년이나 걸린 것이다. 평균 1년 걸릴 일을 1개월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모함이, 역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김준호 교수의 배려로 2003년의 『군사학연구』 창간호에 『전쟁론』 번역서의 번역 문제를 다룬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다.[2] 이제 『전쟁론』이 완역되었으니 『전쟁론』 번역자로서 『군사학연구』에 이 번역 작업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전쟁론』의 한국어 번역서의 현황을 알아보고 번역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7년 동안의 번역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전쟁론』이 난해한 책으로 '악명'을 떨치는 이유를 학문적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전쟁론』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전쟁론』 번역서 현황

번역을 시작하려고 독일어 원전, 영어 번역판, 일어 번역판,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찾았다. 대전대학교에 군사학과와 군사연구원이 설치되면서, 대전대는 『전쟁론』 독일어 원전 초판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 검토에 착수했다. 한 달 정도 걸린 이 작업은 이해 불능으로 중도에 포기해야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번역

2) 김만수, 2003, "『전쟁론』 번역서 유감", 『군사학연구』 창간호, 대전: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1~34쪽 참조.

서들은 내 한국어 실력과 학문 수준을 심각하게 회의하도록 만들었다. 다음은 한국어 번역본들이다. 발행연도, 번역자, 출판사를 발행연도 순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출판사의 이름으로 출판된 초판 1쇄만 언급한다. 그 출판사에서 2쇄, 3쇄 등으로 여러 번 출간된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한다.

1. 1972, 권영길, 하서출판사
2. 1972, 이종학, 대양서적
3. 1974, 이종학, 일조각
4. 1977, 허문열, 동서문화사
5. 1982, 김홍철, 삼성출판사
6. 1982, 허문열, 범한출판사
7. 1982, 권영길, 양우당
8. 1983, 허문열, 학원출판공사
9. 1990, 맹은빈, 일신서적출판사
10. 1991, 강창구, 병학사
11. 1993, , 합동참모본부
12. 1998, 류제승, 책세상
13. 2008, 정토웅, 지만지
14. 2009, 허문순, 동서문화사

이 외에도 『전쟁론』이라는 제목의 책이 몇 권 더 있다. 하지만 그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번역한 책이 아니어서 이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출간된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갈무리 출판사의 『전쟁론』 제1권이 출간되고 나서 두 종이 더 출간되었다. 갈무리 출판사의 『전쟁론』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열다섯 종의 『전쟁론』의 번역서들이 있다. 2000년 이전에 열두 종, 2000년 이후에 세 종이 출간되었다.

『전쟁론』을 번역하기에 앞서 『전쟁론』 열두 종의 번역서를 검토하였다. 위의 목록을 보면 똑같은 번역자의 이름이 여러 번 보인다. 또한 쪽수까지 똑같은 책이 몇 권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서출판사 = 양우당 = 합동참모본부 ≈ 병학사(1=7=11≈10)
대양서적 ≈ 일조각(2≈3)
동서문화사 = 범한출판사 = 학원출판공사 ≈ 일신서적(4=6=8≈9)

(=는 완전히 똑같음을, ≈는 비슷함을 표시한다.)

하서출판사, 양우당,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온 세 종은 권영길의 번역인데, 쪽수까지 똑같다.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온 책은 번역자의 이름이 없는데, 권영길 번역의 불법 복사판이다. 강창구가 번역하여 병학사에서 나온 책은 권영길의 번역과 거의 똑같다. 이종학이 번역하여 대양서적과 일조각에서 나온 책도 거의 같다. 용어를 조금 바꾸거나 띄어쓰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불과하다. 일조각에서 나온 책은 대양서적에서 나온 책의 분량을 크게 줄인 책이다. 동서문화사, 범한출판사, 학원출판공사에서 나온 책은 허문열의 번역인데, 쪽수까지 똑같은 책이다. 맹은빈이 번역하여 일신서적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허문열의 번역과 매우 비슷하다. 접속사나 문장을 약간 바꾼데 불과하다.

똑같거나 비슷한 책 또는 표절을 제외하면 『전쟁론』의 번역서라고 할 만한 책은 열두 종 가운데 다섯 종뿐이다. 번호로 1, 2, 4, 5, 12인데, 이 번역서를 주로 검토하였다. 다섯 종 가운데 1만 완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역이다. 그런데 1은 일어 번역판의 중역이다. 2도 1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체를 보면 2도 일어 번역판을 중역한 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4는 분량이 극히 적은데 매우 '문학적인' 번역이다. 원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의역하여 거의 창작을 하였다. 5는 번역인지 창작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문장을 길게 늘여 놓았다. 그리고 김홍철이 번역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 책은 영어 번역판을 중역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네 종은 어느 책을 원전으로

삼아 번역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12는 다섯 종 가운데 유일하게 독어판을 원전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독어의 발췌본을 번역하여 초역이 되었다. 그리고 독어를 직역한 탓에 이 책으로 『전쟁론』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2003년 6월에 『전쟁론』 번역에 참고하려고 검토했던 번역서들은 모두 일어 번역판이나 영어 번역판의 중역이든지 독어판의 초역으로서 원전 완역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모든 번역서들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곤란이 따랐다. 모든 번역서에서 한두 문장을 빼고 번역한 부분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부언하면, 2000년 이후에 출간된 책 중에 13은 독어의 초역이며, 14는 완역이지만 일어판을 중역한 것으로 보인다. 13은 역자가 초역임을 밝히고 있다. 『전쟁론』 제1편과 제2편 그리고 제8편에서 중요한 부분만 번역했으며, 분량은 『전쟁론』 원전의 약 10분의 1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심을 끄는 책은 14다.[3] 이 책 973쪽에서 역자는 "한국 최초 완역본"을 출간하여 "감개무량"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2009년 10월에 출간되었는데, 이는 갈무리 출판사에서 『전쟁론』 제2권과 제3권이 나온 때와 같다. 14에서는 출간일자와 역자의 이름이 특히 내 관심을 끌었다.

『전쟁론』과 같이 난해한 책은 '문외한'이 번역할 수 없다. 정치학이나 군사학과 같은 사회과학을 공부했든지, 군 관련 분야에 평생 종사한 사람만 『전쟁론』을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론』 제1권의 원전 초판이 내 이름으로 갈무리 출판사에서 완역되고 나서, 약 3년 10개월 후에 허문순이라는 이름으로 『전쟁론』이 출간된 것이다. 허문순이란 이름은

3) 2009년 10월에 『전쟁론』 제2권과 제3권이 출간됨으로써 『전쟁론』 전 3권의 원전이 내 번역으로 국내 최초로 완역되었다. 그런데 14도 '한국 최초'라고 말하고 있다. 갈무리 출판사에서 나온 내 번역의 『전쟁론』과 동서문화사에서 출간된 허문순 번역의 『전쟁론』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주변에서 물어오는 사람이 많았다. 여기에 두 책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전쟁론』 번역사에 나타나지 않은 이름이다. 그래서 나는 허문순이 허문열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허문순은 "30년 넘는 세월을 바쳐" 『전쟁론』을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의 981쪽에 나오는 허문순의 약력을 보고 허문순이 허문열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끄는 것은 출간일이다. 2006년 1월에 내 번역으로 『전쟁론』 제1권이 출간되자, 허문순은 자극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1977년 번역을 토대로 약 3년 동안 『전쟁론』을 새로 번역한 것이다. 1977년판 번역에 있는 허문순의 약력에 따르면, 그는 1934년생이고 현재 76세다. 곧 80을 바라보는 나이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자신의 번역을 완성하려고 결심한 것 같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쟁론』 번역본을 새로 출간한 허문순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렇지만 이번에 동서문화사에서 출간된 『전쟁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 책은 명백히 영어나 일어 번역판의 중역이다. 이는 역자의 이력과 역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책을 직접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둘째, 그는 독어판을 번역했다고 하고, 참고문헌과 독어 원전(1832~1834년 출간)의 서지 사항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론』 독어 원전 초판은 현재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만 소장하고 있다.[4] 나는 이 원전 초판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허문순이 그의 번역 973쪽에 밝힌 『전쟁론』 독일어 원전 초판의 서지사항은 명백히 내 번역으로 나온 『전쟁론』 제1권에 있는 내 머리말의 표절이다. 내용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다. 셋째, 허문순이 번역 텍스트로 삼았다는 책에는 클라우제비츠의 부인인 마리 폰 클라우제비츠의 머리말이 제1권뿐만 아니라 제3권 앞에도 있다. 그런데 허문순의 번역에는 제3권에 있는 마리 폰 클라우제비츠의 머리말이 없다. 따라서 허문순이 번역의 텍스트로 삼았다고 밝히는 1번 책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허문순이

4) 내 번역의 모든 책에는 이 책의 사진이 실려 있다.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이 책의 서지사항을 볼 수 없다. 특별 도서로 특별 보관되어 있고, 책에 도서번호 등을 붙이지 않았다.

말한 2번 책은 독어판의 발췌본인데, 이 책을 텍스트로 삼아서는 『전쟁론』을 완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말도 신뢰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허문순의 번역본을 분석한 결과, 각주는 일어판과 내 번역본을, 제1편~4편은 내 번역과 류제승의 번역을, 제5~8편은 기존의 일어 번역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보이는 우리말은 제1~4편 번역과 제5~8편의 번역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제2권과 제3권의 내 번역이 출간되지 않은 마당에, 허문순의 번역은 제5~8편에서 이미 나와 있는 일어 번역판을 주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역으로 밝혀진 부분에도 허문순은 기존의 일어나 영어 번역판을 답습하고 있다. 앞에 밝힌 이유들로 허문순의 번역은 한국 최초의 완역본이 될 수 없다.

Ⅲ. 『전쟁론』 번역 작업 과정

『전쟁론』처럼 난해한 책을 혼자 번역한 역자의 '넋두리'를 너그러운 독자들은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 작업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전쟁론』을 번역한 지난 7년은 '악랄한' 책을 붙들고 '발악'을 한 시간이었다.

7년 동안 원서를 다섯 번 읽었다. 방학 때는 하루 17시간씩 강행군한 적도 많았다. 무더운 여름에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엉덩이는 짓물렀다. 의자에 앉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번역한 적도 있고, 선 채로 번역한 적도 많았다. 정약용 선생이 너무 오래 앉아 책을 읽으니 더 이상 앉을 수 없었고 그래서 선 채로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고시용 독서대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다. 『전쟁론』을 번역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고시용 독서대는 2층으로 되

어있다. 보통 한 층에 책 두 권을 펼쳐놓을 수 있는 넓이다. 그러니 독서대 한 개에는 책 네 권을 한꺼번에 펼쳐볼 수 있다. 문고판 책은 한 층에 세 권도 펼쳐놓을 수 있다. 번역을 하는데 그 독서대 두 개를 좌우로 두고 독일어원문, 영어번역판, 일어번역판, 다섯 개의 한글번역판, 총 여덟 권을 펼쳐놓았다. 책상 가운데에는 모니터와 자판, 독한사전이 자리 잡고 있다. 의자 좌우에 있는 작은 책상에는 각종 사전이 열권쯤 놓여있다. 준비는 끝났고 번역이 시작된다.

독어 원전, 영어 번역본, 일어 번역본 순서로 읽고 이를 우리말 번역본과 일일이 대조하며 번역을 진행했다. 그것은 너무나 느린 속도였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약 10시간 번역하면 독일어 원문 두 쪽을 못 넘긴다. 물론 두 쪽을 넘겨 번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내 눈에 바로 '날림'과 '부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느리고 또 느리게 번역했다. 앞에서 번역한 낱말이 다음에 또 나오는데, 다음에 번역한 낱말이 더 적절하다. 표에 적어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나중에 좀 더 적절한 번역어를 고르게 된다. 뒤로 갈수록 번역이 좋아지고 매끄러워지는 것 같다. 군 관련 전문용어들이 보이거나 번역본마다 다른 낱말이 보이는 경우 등이 나타나면 대전대 군사연구원에 있는 전 현직 영관 장교들에게 문의한다. 그들과 토론하며 논쟁도 벌인다. 이런 작업에 약 2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것은 1차 번역에 불과하다.

이제 다시 원전의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1차 번역에서 했던 일을 반복한다. 번역해 놓은 몇 개의 낱말 중에 제일 적절한 낱말을 고른다. 표로 만들어둔 용어집을 참고하면서 낱말을 계속 고친다. 1차 번역 때보다는 좀 빨리 할 수 있지만, 이 작업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여기까지 2차 번역이다.

이제 모든 영어판과 일어판 그리고 다른 한국어 번역서를 책상에서 몰아낸다. 독어 원문과 내 원고만 바라본다. 이오덕 선생 말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오덕 선생의 정신에 따라 모든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쉬

운 우리말로 바꾸고 고치고 다듬는다.[5] 이것은 국어와 '전쟁'을 벌이는 일이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옮기는 일이다. 이것이 3차 번역이다.

이 원고로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에서 『전쟁론』을 강의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번역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들이 어렵다고 표시한 부분을 쳐다본다. 어떤 말로 써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쉽고 좋은 말이 떠오를 때까지 사전을 뒤진다. 낱말 하나, 문장 하나를 붙들고 비교하며 대조하고 검토하고 생각했다. 단어를 찾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다. 알고 있는 단어도 찾았다. 원문의 문맥과 맥락을 보고 사전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일 적절한 단어를 고른다. 이때 필요하면 다섯 권의 우리말 번역본, 영역판과 일역판도 다시 참고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무한정 늘어난다. 혹시 내 번역에서 낱말이나 조사 또는 쉼표 등이 독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렇게 쓴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적절한 말을 찾느라고 상상력도 발휘해야 하는 것을 보면, 번역은 창작활동이며 예술활동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새롭고 적절하고 쉬운 낱말이 떠오를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이 4차 번역이다.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사전에서 제일 많이 찾은 낱말은 groß (big, large, tall, great)라는 낱말이 아닐까 한다. '큰, 대, 긴, 넓은, 크기, 넓이, 높이, 오래 걸리는, 어른, 커진, 성장한, 나이가 든, 손위의, 많은, 대규모의, 대단한, 심한, 중대한, 중요한, 위대한, 훌륭한, 굉장한, 뛰어난, 호사스러운, 화려한, 대체의, 대개의, 일반적인, 숭고한, 고상한,

5) 독자는 뜻밖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쟁론』을 번역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으려 한 것은 이오덕 선생의 우리말 사랑 정신이다. 나는 이오덕 선생의 의견이나 주장에 백 퍼센트 공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다. 하지만 늘 이오덕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두고 낱말을 고르고 문장을 만들려고 애썼다. 이오덕, 1992~1995, 『우리글 바로쓰기 1~3』, 서울: 한길사 참조.

사리사욕이 없는', 대략 이 정도의 뜻이 사전에 보인다. 다른 말과 함께 관례적으로 쓰이는 용법이나 부정문에서 쓰이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러면 번역은 선택이 된다. 수많은 말 중에 문맥에 맞게 제일 적절한 말을 고르는 일이다. 그러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고 시간만 잡아먹는 일이다.

본문 중간 중간에 해설을 넣을 생각은 4차 번역 과정에서 생겨났다. 원고로 수업을 받은 대전대 군사학과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를 이해하기 쉽도록 고쳤다. 원문의 수준을 지나치게 벗어나면 안 되는 번역의 '굴레' 때문에 쉽게 고치는 일에도 제한이 따랐다.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학생들은 이해했다. 원문의 난해함, 내가 직접 쓰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원전의 완고함, 나의 설명, 이런 것들을 화해하도록 만드는 길은 해설을 붙이는 것이었다.

1차와 2차 번역보다는 3차와 4차 번역에 더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작업이 더 고통스러웠다. 우리말과 글자를 씹어 먹고 살았다고 할까? 4차 과정을 끝낸 후 주변의 친구들에게 원고를 보냈다. 친구들 중에는 교정과 교열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들에게 원고를 주며 교정과 교열을 부탁했다. 네 번이나 읽고 검토한 원고에 새빨간 색으로 도배된 교정지를 돌려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 것을 대하면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원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난다. 겨우 정신을 차려 새빨간 교정지를 보고는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여 받아들일 부분을 찾고 고치고 다듬는다. 이것이 5차 번역이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고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다. 그런데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난 후에도 교정과 교열은 최소한 한 달은 더 이어지는 것 같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검토한 분들의 교정을 또 읽고 원고를 고치는 일을 끝낼 쯤, 나는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진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은 『전쟁론』 책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전쟁론』 번역에 많은 시간이 걸린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그건 경

제적인 문제였고,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제1권이라도 먼저 출간되지 않으면 언제 이 일을 끝낼지 내 스스로 자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1권을 먼저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생각으로 학술진흥재단을 알아보기도 했고 '학진'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다. 학진의 '동서양 명저 번역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보라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진은 포기하고 말았다. 우선 내가 '강사 재벌'이라는 우스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학진형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전쟁론』은 1년이나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또한 학진의 관료적인 절차와 시스템도 내게는 사람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Ⅳ. 『전쟁론』 읽기의 어려움

『전쟁론』이 왜 난해한 책인가? 하나의 책이 어떤 형태로 완성될 것인지는 저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므로 오로지 그 저자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을 원고의 상태로 남겨둔 채 원고를 완결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쟁론』의 내용이 난해해졌다. 이제 클라우제비츠의 구상대로 『전쟁론』의 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전쟁론』이 복합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전쟁론』은 정치학과 군사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역사학의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셋째로 번역서의 문제인데, 우리말 번역서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애써 읽어도 국어를 이해할 수 없고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 『전쟁론』을 완독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론』의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전쟁은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전쟁은 총으로 하는 외교이며 외교는 말로 하는 전쟁, 전쟁은 자신의 고유한 문법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고유한 논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등, 몇몇 유명한 명제만 반복할 뿐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전쟁론』 연구도 대부분 제1편에 나오는 전쟁의 삼중성이나 전쟁 천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세 번째 이유는 이번 『전쟁론』의 완역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다. 『전쟁론』은 무엇보다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치학적 특징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현실과 무관한 순수이론의 관점을 멀리 하고 현실과 현실정치에 깊이 관련되는 책이다. 『전쟁론』의 학문 영역은 정치학, 그것도 국제정치 분야다. 바로 앞에 말한 전쟁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명제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둘째로 『전쟁론』은 당연히 군사학의 성격을 갖는다. 『전쟁론』은 전쟁의 본질과 구성요소의 관계, 전략과 전술, 전투와 전투력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전투력의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 측면도 다루고 있다. 요새, 진지, 보루, 산악, 하천, 늪지대, 침수지, 숲, 초병선, 나라의 중요한 관문, 측면진지 등에서 수행해야 하는 방어의 종류를 자세히 연구하고 도하, 기동, 견제, 침략을 언급하며 방어진지, 보루진지, 산악, 초병선, 늪지대, 침수지, 숲, 전쟁터, 요새, 수송대 등에 대한 공격, 사영하는 적군에 대한 공격 등과 같이 공격의 많은 종류를 검토한 것으로 보면, 『전쟁론』은 명백히 군사학의 성격을 갖는 책이다.

또한 『전쟁론』은 철학책이다. 『전쟁론』은 총만 잘 쏘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한 책이 결코 아니다. 승리는 무엇이며 승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쟁론』은 전쟁과 인간, 전쟁과 정치, 전쟁과 평화의 관계 등 전쟁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전쟁과 전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전쟁론

』은 심리학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아군이나 적군 병사들과 지휘관의 심성,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고지휘관은 어떠한 자질과 심성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전쟁론』은 특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쟁론』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사를 고려하면 『전쟁론』은 역사학의 성격도 갖는다. 인류의 역사에 나오는 전쟁과 전투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이론을 만들고 확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쟁론』은 역사학의 성격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전쟁론』이 논리학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 점이 『전쟁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전쟁론』에는 형식논리학이 아니라 변증법적 논리학이 보인다. 변증법적 논리학에서 『전쟁론』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개별성, 특수성, 일반성 또는 구체성, 추상성의 논리적인 위계 그리고 연구방법과 서술방법의 본질적인 차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열세 살 때 전투에 참여하여 실전을 경험했고 이후 군사학교에 입학하여 이론을 공부했다. 이후에도 전투와 이론 공부를 병행했으며, 1818년부터 약 12년 동안 『전쟁론』 원고를 집필했다. 그는 수많은 전투와 전쟁들(개별성)을 경험했고, 이러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그의 이론(일반성)을 완성하게 된다.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경험한 후에 전쟁의 일반적 정의와 성격을 파악하게 되는 순서는 개별성에서 특수성을 지나 일반성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수많은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향하는 방식이다. 수많은 전쟁의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한 다음에 이를 일반화하여 법칙성을 찾고 이론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주제에 대한 올바른 연구방법이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라는 명제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연구방법의 순서대로 서술하면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여 일반적인 법칙과 이론을 끌어내는 데서 책이 끝나게 된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긴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즉 책을 서술할 때는 연구방법에 따

른 서술방법이 아닌 새로운 서술방법을 찾아야 한다. 올바른 서술방법은 연구방법을 뒤집는 것이다. 일반성을 먼저 밝히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일반성의 이런저런 예를 볼 수 있다는 순서로 서술하는 방식이 올바른 서술방식이다. 서술방식은 일반성에서 특수성을 지나 개별성으로, 즉 추상성을 먼저 밝히고 구체성을 서술하는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현재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일반적인 이론의 도움을 통해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론을 세우고(연구방법), 이 이론으로 예를 설명하면(서술방법),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이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변증법적 논리학의 체계로 서술된 책은 모두 앞부분이 어렵다. 앞부분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론과 명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쟁은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라는 명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명제 등은 수많은 전쟁을 연구하고 분석한 후에 비로소 얻은 결론이지만(연구방법), 책을 서술할 때는 그 명제들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명제에 합당한 예들을 언급한다(서술방법). 이 순서에 따라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과 전투를 더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론』의 모든 장이 이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만약 사례들이 더 이상 이론에 부합하지 않고 이론이 새로운 사례를 설명할 수도 없다면, 그 이론은 폐기되어야 하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전쟁론』은 완결되지 않은 원고이지만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변증법적 논리학의 구조에 따르면, 『전쟁론』에서 오래 되어 낡은 전투나 전쟁사 부분을 빼고 이론 부분만 발췌하여 번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된다. 일반화를 통해 도달한 결론이나 명제들이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쟁론』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에는 축약본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전쟁론』을 『전쟁론』으로 만드는 논리학적 체계들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전쟁론』 중에 '오래 되어 낡은 부분을 줄여' 출판하는 역사는 독일에서 1935년부터 시작되었다.[6] 이 예에 따라 지금도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약본이 독일에서도 출간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약본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추상적이고 난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쟁사의 예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전쟁론』 읽기의 어려움을 전부 설명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주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역사와 관련된다. 한마디로 『전쟁론』의 이해는 전쟁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쉽게 설명하겠다. '한국전쟁에서 1950년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면 북한이 승리하고 한반도를 통일했을 것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국전쟁은 남한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다.' '대전에서 서울에 가려면 천안, 평택, 수원을 지나는 것이 좋다. 제천과 강릉을 지나 원주를 거쳐 서울로 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을 맞고 죽었다.' 이런 문장을 영어로 옮긴다면, 영국과 미국의 일반 독자들이 이 말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무척 어려울 것이다. 역사나 지리 그리고 인물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쟁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쟁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 당시 전쟁의 모습과 형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전쟁론』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나 지명도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을수록 『전쟁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말에는 산이나 강에 한라산이나 한강처럼 산과 강이란 말을 붙이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말을 붙이지 않는다. 라인 강, 세느 강을 그냥 라인, 세느로 쓰고 알프스산도 그냥 알프스로 쓴다. 잘 알려진 지

6) W. Pickert/W. von Schramm, 1963, "Zum Text",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Reinbek bei Hamburg: Rowohlt Verlag, 248쪽. 이 책이 류제승이 『전쟁론』 번역의 텍스트로 삼은 책. 여기 참고한 것은 이 책의 2002년 판(제11쇄).

명은 별 문제 없지만 어느 낱말은 그것이 강인지 산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독어에 seine는(원형은 sein) 영어의 his에 해당한다. 이 낱말은 소문자로 써야 하는데, Seine처럼 대문자로 쓰여 있었다. '그의' 또는 '그 사람의'라고 해석해서는 문맥상 이해할 수 없었다. 여러 번 들여다보고 사전을 뒤진 끝에, Seine라는 낱말이 불어이며 세느 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건 내 불어 지식의 부족인데도 허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전쟁론』에 자주 나오는 문학적인 비유와 논쟁적인 표현도 『전쟁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독일의 학자나 저술가들은 논쟁적인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는 편이다. 비유적인 표현이 없으면 글이 평범하고 '싱거워서' 읽는 즐거움이 떨어질 정도다. 그런데 문학적인 색채를 지니는 글은 읽는 데는 즐겁지만 번역하는 데는 고통스럽고 곤혹스럽다. 두 나라의 문화나 학문 전통이 다르니, 그러한 표현에 합당한 적절한 우리말을 찾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에서 배운 국어와 국문학은 『전쟁론』에서 문학적인 표현을 번역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전쟁론』이 우리말로 번역된 역사도 27년이나 되는데, 군사학 용어의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도 『전쟁론』을 번역하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한국에는 군사학사전이 없다. 육군에서 『군사용어사전』을 발간한 적은 있지만[7] 이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군 내부에서 쓰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독어 등 제2외국어는 그 용어사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군사학사전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몇 개의 예를 보도록 한다.

『전쟁론』에서 싸움, 전투, 전쟁 등을 뜻하는 단어를 골라 작은 규모의 전투에서 큰 규모로 배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Kampf(싸움), Treffen(싸우려고 만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말), Streit(다툼),

7) 육군본부, 2006, 『군사용어사전』 참조.

Plänkelei(매우 작은 소규모 전투), Gefecht(combat, engagement, 소규모 부대 간 단기 전투), 여기에 접두사를 붙여 Teil-gefecht, Total-gefecht, Gesamt-gefecht, Entscheidung(결전), 여기에 접두사를 붙인 Haupt-entscheidung, Schlacht(battle, 대규모 부대 간 장기 전투), 여기에 접두사를 붙인 Haupt-schlacht, Feldzug(campaign 대전투 또는 전쟁), Kampagne(campaign, 라틴어에서 온 말로 Feld- zug과 동의어), Krieg(war) 등이다. 영어에도 encounter(우연한 충돌), skirmish(부대 간의 우연한 충돌), engagement(전군이나 소부대의 충돌), combat(제일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말), battle(상당 기간 꽤 넓은 범위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행되는 전투), campaign(어떤 목적을 갖고 수행되는 일련의 작전), war(전쟁) 등 많은 용어를 볼 수 있다. 부대, 군, 군대 등을 나타내는 개념도 Streitkraft(전투력), Truppe(부대), Korps(군단, 군), Heer(군, 군대), Armee(군, 군대), Kolonne(종대), Teil, Masse, Haufen 등으로 다양하다. 전쟁터라는 개념에는 Kriegsfeld, Kriegstheater, Schlachtfeld 등이 있다. 장군이나 지휘관도 Feldherr, Oberfeldherr Unterfeldherr 등이 있고, 문맥에 따라 Führer, Herr, Befehlshaber 등도 지휘관이란 개념으로 쓰인다. 개념이 이렇게 많고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한국의 군사학계나 군사학회는 이 개념들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를 제시하고 토론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군사학사전을 발간해야 할 것이다.

용어와 관련하여 한마디만 더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도둑이야!' 또는 '불이야!'라고 말하고 쓴다. 이는 내용상으로도 충분하고 문법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글에는 예를 들어 '남산에 불이 났다.'고 하지 '남산에 불이야!'라고 하지는 않는다. 전투나 전쟁이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돌격, 전진, 후퇴, 사격!' 등은 그 자체로 충분한 용어이며 의사전달 수단이다. 전쟁에서 '자, 지금부터 전진을 해야 합니다.'처럼 태평스럽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현실의 필요에 따라

줄여 쓰는 말을 역으로 원서를 번역할 때 쓰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자(攻者)와 방자(防者)는 현실의 급박한 필요에 따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원전을 번역할 때는 공격자와 방어자, 공격군과 방어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에서 학술진흥재단을 일부러 학진으로 줄여 썼는데, 그 말을 영어로 Hakjin으로 옮기면 외국인은 그게 재단인지, 김학진이나 이학진처럼 사람 이름인지, 학진강이나 학진산처럼 강이나 산 이름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식 군사용어나 2차 대전 이후에 확립된 미국식 군사용어를 그보다 120년 이상 앞서 출간된 『전쟁론』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번역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 번역은 사전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번역하는데 제일 많이 읽고 참고한 책은 사전이다. 독한사전, 영한사전, 불한사전, 국어사전, 라틴어사전, 독영사전, 비슷한 말 사전, 반대말 사전 등등.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은 사전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많은 사전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랑스에서 계몽사상과 근대사상이 싹트고 발전한 것이 백과전서파 덕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전쟁론』을 읽고 이해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전쟁론』을 읽고 이해하는데 따르는 이 모든 어려움은 무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론』에 이러한 난관이 있고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전쟁론』은 소설처럼 빠르게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전쟁론』은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

내 번역 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론』의 가치와 위상에 합당한 새로운 번역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 번역을 하는 사람은 먼저 뛰어난 독일어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영어와 일어 능력도

갖추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정치학, 군사학, 철학, 역사학, 심리학, 논리학에 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문학에 대한 이해와 소양도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사에 대한 배경지식, 유럽의 지리와 인물들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문화와 지식의 수준도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런 토대에서만 앞으로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전쟁론』 번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 또는 군사학 학사, 석사, 박사 등과 같은 한국의 학문적 순혈주의나 배타주의적인 토양에서는 『전쟁론』의 새로운 번역이 나오기도 힘들고, 21세기에 학문간의 통섭을 이루고 학문의 발전을 이루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 주변에는 1년에 20여 편 이상의 논문을 양산하는 교수들도 있고, 뚜벅뚜벅 동서양의 고전을 번역하는 교수들도 있다. 전통적인 논문 형식의 글쓰기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그런 논문들은 학문의 수준을 높이는 독창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이론의 틀에 숫자를 대입하기만 하면 나오는 결과물들이 대부분이다. 대학의 의미도 달라지고 학문의 영역도 다양화된 21세기에, 읽는 사람도 별로 없는 논문만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동서고금의 고전과 원전을 제대로 충실하게 번역하여 다음 세대의 학문 발전에 초석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V. 『전쟁론』 연구와 관련된 향후 계획

논리적으로 앞 장의 제목을 뒤집으면, 즉 『전쟁론』 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전쟁론』 연구와 관련된 향후 계획이 나온다. 제일 중요한 계획은, 난해한 『전쟁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해설서를 출간

하는 일이다.

『전쟁론』은 짓다 만 집과 같다. 해설서는 그 집을 클라우제비츠 자신이 지으려고 했던 그대로 마저 짓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난관이 따른다. 그 집의 설계도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짓다 말았기 때문에 벽이나 기둥은 알 수 있지만, 집 전체의 모양을 상상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이럴 때는 짓다 만 집을 오랜 시간을 들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클라우제비츠 자신이 그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지으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살펴본 다음, 확신이 들면 체계를 세워 해설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쟁론』은 큰 산과도 같다. 여러 번 산에 올라도 자신이 간 길만 알지 다른 길은 잘 모른다. 그래서 나무는 볼 수 있지만 숲을 볼 수 없다. 해설서는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해설서라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어떠한 해설서인지 고민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분량과 형태로 된 해설서를 생각하고 있다. 성격에 따라 해설서라고 할 수도 있고 요약서라고 할 수도 있다. 분량이 『전쟁론』만큼 많을 수도 있고 핵심 내용을 정리한 짧은 분량이 될 수도 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니,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해설서를 생각할 수도 있다. 『전쟁론』의 체계, 이론, 개념을 계통도를 만들듯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전쟁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형태와 분량의 해설서든 제대로 된 『전쟁론』 해설서를 출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쟁론』의 많은 전투와 전쟁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일반 독자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1806년의 예나전투'라고만 말하면 그 전투를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전쟁과 전투를 정리하면 좋을 것이다.[8] 둘째, 『전쟁론』에 나

8) 이를 위해 전쟁사 책을 많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책 몇 권을 보면, 버나

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전쟁론』에 나폴레옹과 프리드리히 대왕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전쟁론』에 나오는 많은 지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강, 산, 늪, 숲인지를 말하고, 이러한 지역을 지도로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9] 나폴레옹 시대에 유럽 여러 나라들의 영토와 국경이 표기된 유럽 지도를 찾고 만드는 일도 필요한 작업이다. 넷째, 체계적인 찾아보기를 만들어야 한다. 가나다순이 아니라 『전쟁론』에 나오는 이론과 개념, 체계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개념 지도 수준으로 찾아보기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에 인문사회과학의 고전에 대해 이러한 연구 작업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쟁론』 해설서를 출간한다면, 이는 이번의 『전쟁론』 완역판과 함께 후학들에게 『전쟁론』 연구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설서 이외의 향후 계획으로 『전쟁론』 개정판 출간을 들 수 있다. 이건 아킬레스건과 같다. 『전쟁론』 독어 원전 전 3권을 완역하여 출간한 그 해에 개정판을 언급한다는 것은 역자로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정판이 나와야 할 것이다. 10년이나 20년 후쯤 『전쟁론』 개정판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치학계나 군사학계는 그동안 그만큼 고인 물로 머물렀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드 로 몽고메리, 1968,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4/노병천, 2008, 『나쁜 전쟁 더 나쁜 전쟁』, 서울: 양서각/윌리엄 위어, 2001, 『세상을 바꾼 전쟁』, 서울: 시아출판사, 2005/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2004, 『세계전쟁사』, 서울: 황금알 등이 있다. 최근에 출간된 기념비적인 전쟁사 저작으로는 네 권으로 이루어진 한스 델브뤼크, 1920, 『병법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년을 들 수 있다.

9) 참고할 만한 지도로는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2007, 『세계전쟁사 부도』, 서울: 황금알 등 몇 권이 있다. 여러 전쟁사 책에 있는 지도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쟁론』에 나오는 지역을 답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답사한다면 『전쟁론』에 나오는 인물이나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방대학이나 육군대학 또는 일반 대학의 지리학과 교수나 지도 전문가와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정판이 나올 수 있으려면 이번에 완역된 『전쟁론』으로 활발한 강의와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이 없는 곳에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일반 대학과 대학원의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군사학과에서 정규 개설 과목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쟁론』 강의와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 관련 분야에서는 육사, 육군대학, 국방대학이 『전쟁론』을 강의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10] 학생 때나 초급 장교 때 그리고 고급 장교로서 군대의 중추적인 자리에 있을 때 『전쟁론』을 읽는 것은 그 학생이나 장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의든 세미나든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한다면, 『전쟁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강의 환경은 『전쟁론』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VI. 맺음말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클라우제비츠학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먼저 독일과 영미권의 연구결과와 클라우제비츠 연구 역사를 소개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클라우제비츠 홈페이지(http://www.clausewitz.com/index.htm)의 방대한 내용을 보면, 클라우제비츠 연구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이 얼마나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클라우제비츠 관련 연구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클라우제비츠와 『전쟁론』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원전 완역은 우리들이 이 모든 연구의 출발점에 있음을 일깨운다.

---

10) 물론 해사, 공사, 3사, 해군대학, 공군대학 등에서도 『전쟁론』 강의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쟁론』의 본래 영역은 정치학이며 군사학이다. 이 때문에 『전쟁론』은 정치가와 군인들의 연구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경영전략, 마케팅전략, 리더십 등을 연구하고 설명하는 데 『전쟁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 『전쟁론』은 철학이나 역사학 등 많은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고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상응하도록 『전쟁론』에 관해 활발한 강의와 연구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전쟁론』 번역서는 아래와 같이 먼저 따로 정리한다.

2006, 김만수 역, 도서출판 갈무리, 『전쟁론』 제1권
2009, 김만수 역, 도서출판 갈무리, 『전쟁론』 제2권
2009, 김만수 역, 도서출판 갈무리, 『전쟁론』 제3권

1972, 권영길 역, 하서출판사
1972, 이종학 역, 대양서적
1974, 이종학 역, 일조각
1977, 허문열 역, 동서문화사
1982, 김홍철 역, 삼성출판사
1982, 허문열 역, 범한출판사
1982, 권영길 역, 양우당
1983, 허문열 역, 학원출판공사
1990, 맹은빈 역, 일신서적출판사
1991, 강창구 역, 병학사
1993, , 합동참모본부
1998, 류제승 역, 책세상
2008, 정토웅 역, 지만지
2009, 허문순 역, 동서문화사

** 다른 책과 논문들은 아래와 같이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며, 참고한 각종 사전은 따로 밝히지 않는다.

김만수, 2003, "『전쟁론』 번역서 유감", 『군사학연구』 창간호, 대전: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1~34쪽
노병천, 2008, 『나쁜 전쟁 더 나쁜 전쟁』, 서울: 양서각
델브뤼크, 1920, 『병법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몽고메리, 1968,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4

육군본부, 2006, 『군사용어사전』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2004, 『세계전쟁사』, 서울: 황금알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2007, 『세계전쟁사 부도』, 서울: 황금알
위어, 2001, 『세상을 바꾼 전쟁』, 서울: 시아출판사, 2005
이오덕, 1992~1995, 『우리글 바로쓰기 1~3』, 서울: 한길사
Clausewitz, Carl von, 1832, *Vom Kriege*, 1, Berlin: Ferdinand Dümmler
Clausewitz, Carl von, 1833, *Vom Kriege*, 2, Berlin: Ferdinand Dümmler
Clausewitz, Carl von, 1834, *Vom Kriege*, 3, Berlin: Ferdinand Dümmler
Clausewitz, Carl von, 2002, *Vom Kriege*, München: Ullstein
Clausewitz, Carl von, 2002, *Vom Kriege*, Reinbek bei Hamburg: Rowohlt
Pickert, W/Schramm, W., 2002, "Zum Text", Carl von Clausewitz, 2002, *Vom Kriege*, Reinbek bei Hamburg: Rowohlt

Epilogue to the unabridged Korean translation of *On War*

Kim, Man-Su*

This year I published a Korean translation of *On War* in three volumes, written by Prussian general Carl von Clausewitz. I believe it is the first unabridged Korean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German text, *Vom Kriege*. It is true that the work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several times, but some translations have been done from English or Japanese versions, while others are abridged ones. It is not easy to make a good translation of *On War*, partly because the book is actually an unfinished work, and partly because it contains almost all academic subjects in social sciences. Moreover, two aspects of the dialectical logic in the book make it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One is inductive reasoning, the other is deductive explanation. The former is to 'ascend' to draw principles and generalizations from empirical experience, the latter is to 'descend' to describe and explain given principles, often by concrete examples. Considering these difficulties, if we want to have better translations than existing ones, there should be substantial commentaries which contain not only history of wars, but also biographies and geographies

*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Daejeon University

concerned. I hope that *On War* can be taught and studied in many universities, for it will make it easier to produce reliable commentaries.

Key words: Clausewitz, *On War*, Korean Translation